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생명은 아름답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장 소 :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독고**	학 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박**	학 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이**	학 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 앞으로의 일정 계획 확립, 의견 공유 및 북클럽 내 OT 진행</p> <p>박**: 우리 조의 근본적인 주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본주의 속 소외에 대한 윤리적인 고찰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책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에 주의하면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알렉산드로 보파의 <i>넌 동물이야</i>, 비스코비츠에서 동물과 접목되어 인간사를 어떻게 표현해낼지 기대되며 인체쇼핑에서는 비현실적인 것 같은 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장소는 코로나에 대한 염려도 있으니 초반의 일정 계획에 적힌 핵심덕인 토의 일정 외에서는 줌이나 카톡 단톡방 등 개인적인 연락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이**: 인체쇼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장기매매의 현실을 엿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며 토의 때도 지금까지 무관심했었던 현실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자료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 책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할 것 같다. 토의 일정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이 한산해지는 시간대를 고려해서 찾아가거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룸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책을 읽고 토의 주제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아볼 때 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단톡방에 자료를 올려놓아 자료 설명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독고**: ‘너는 동물이야, 비스코비츠’의 초반을 읽어보았는데 작가의 문체 자체가 비판적이고 인간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화적으로 풍자하는 느낌이라 책을 읽을 때 주제에 대한 고려를 더 하면서 읽어야 할 것 같다. 인체쇼핑의 경우에는 여러 통계자료와 함께 책을 읽으면 더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또한 이번 독서를 통해 사회 속에서 눈치 채기 어려운 소외와 그 이유 등을 알아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토의 시간에는 녹음을 하면 나중에 보고서</p>							

를 쓸 때 참고하기 좋을 것 같고 토의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책을 읽으면서 인상깊었던 부분들에서 찾아낸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확립된 일정은

11월 6일

‘인체 쇼핑’ 정독 후 모임, 인상 깊은 부분과 각자 느낀 점이나 생각을 공유한다. 또한 토론 주제 선정을 위해 미리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온다

11월 13일

‘인체 쇼핑’의 토론 주제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토론 진행, 자료는 미리 단톡방에 제시한다.

11월 20일

‘년 동물이야, 비스코비츠!’ 정독 후 모임, 인상 깊은 부분과 각자 느낀 점이나 생각을 공유한다. 전체적인 주제에 맞는 부분이나 느낀 점을 생각해온다

11월 27일

‘년 동물이야, 비스코비츠!’의 토론 주제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토론 진행, 자료는 미리 단톡방에 제시한다.

2020 년 10 월 30 일

참가자대표 : 독고**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생명은 아름답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6 (금요일) / 장 소 :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독고**	학 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박**	학 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이**	학 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 도서 : 인체쇼핑 목표: 각자 인체쇼핑을 읽고 책에 대한 느낌과 생각, 인상깊은 부분 등을 공유합니다. 토론해볼만한 주제를 선정합니다.</p> <p>독고**: 인체쇼핑이라는 제목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다. 책의 원제 또한 'body shopping' 이었다. 본인의 장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인공적인 제조가 불가능해 큰돈을 주고서 몰래 장기를 사들이는 사람들. 안타깝고도 두려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들에서 이러한 시장은 매우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 장기기증자의 수보다 대기자의 수가 현저히 많고, 개인들이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체에 값을 매기고 판매와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이 음지화 되어있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지적이 인상 깊게 느껴졌다. 어떠한 선택에도 한계가 있으며, 결과가 가져오는 장단점과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파급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체 매매의 양지화, 인체 유래물 사용을 더 절차화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시간에 다룰 토의 주제는 '인체 거래의 상한선'으로 생각했다.</p> <p>박**: 책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 기업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법철학의 관점에서, 우리 몸에 대한 스스로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여러 철학자들은 노동을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편이었지만, 우리 몸과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들인 노력을 따지다 보면 결국 부모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소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장에서 나오는 무어와 그린버그 부부는 자신들이 제공한 세포 혹은 유전자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얻어내는 재판에서는 모두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해석들은 기증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증받은 조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더더욱 소유권이나</p>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를 통해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기증자가 오히려 보관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줄기세포를 채취하기 위하여 오히려 산모와 태아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되기도 하였는데, 신체 조직이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하여 상품으로 바뀌어가는 현실이 차갑게 느껴졌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비단 조직 은행과 기증의 분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다. 가령, 미용성형에도 타인의 조직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사례로 제시된 콜라겐의 경우 시신의 뼈에서까지 추출해내어 이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다가왔다. 반드시 인체로부터 얻어져야 하는 유래물에 있어서, 그 획득과정에서 어떠한 규칙들이 지켜져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 문제들이 가져온 존엄성 훼손과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저자는 정체성 문제를 우선으로 들고 있다. 사람들이 자가 진단 하에 스스로를 환자로 규정하며 수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매력적이지 못한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부작용의 위험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계할 만해 보인다. 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과학자들에게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생명과학에 상업적 요소가 도입되며, 그 가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생체 조직의 소유권을 명확히 정립하여 불법적인 수집을 막고 그 유통구조를 차단하여 몸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기매매의 실상과 제재 노력, 현실적인 문제나 한계에 대해 다양한 논점과 기사를 준비하여 공유하고 더 대화해보면 좋을 것 같았다.

서로 책에서 인상 깊게 느낀 부분에 차이가 있기에, 본인의 관심이 향했던 파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 학생이 제시한 '장기매매의 실상과 제재 노력, 현실적인 문제나 한계'라는 주제에 대해 각자 정보를 수집하여 준비해 오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6일

참가자대표 : 독고**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생명은 아름답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13일(금요일) / 장 소 : 의학관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독고**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토의 내용</p> <p>도서: 인체쇼핑</p> <p>목표: 지난시간에 선정한 토의 주제 '장기매매의 실상과 제재 노력, 현실적인 문제나 한계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해 각자 준비해온 내용의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보완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p> <p>박**: 인터넷에 '장기매매'를 검색하기만 해도, 장기매매를 원하는 글이 수도 없이 펼쳐진다.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장기매매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카페만 11곳이며, 해외 이식 수술 알선카페가 총 12곳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카페를 통해 브로커들이 상습적으로 대금을 가로채거나, 불법적인 루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미성년자들까지 이러한 매매에 가세하여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매매의 목적은 '돈'이다. 그렇기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브로커들은 곤궁한 매매자들, 돈이 필요한 미성년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러한 인체를 금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매매는 인간을 물질적으로 여기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의 장기매매가 허용됨으로써 인간에게 돌아올 혜택보다, 장기적으로 장기가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인식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들을 물건시 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 인간이 오랜 기간 고수해온 규칙과 제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또한, 이러한 금전의 문제가 계층의 문제나 빈부의 차이로 그 영향을 뺏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의 부여 순서가, 생명의 위급함이나, 진료 순서가 아닌 판매에 의존하게 된다면,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갈 것은 풍족한 상류층이라는 것, 장기를 제공하는 것은 돈이 부족한 사람들로 한정될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합법적인 장기착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p> <p>독고**: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4년간 장기 및 조직 기증자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기증을 하기위해 기증희망등록을 했다가 기증을 취소하는 사례도 만건 이상으로, 2019년 기준 2015년 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사회에서 대다수가 신체를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비윤리적이라 인식하지만, 이식받아야하는 사람이 해마다</p>						

증가하며, 그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장기매매의 필요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장기매매가 일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을 때,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판매에 있어서는 허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의 신체와 장기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개인의 소유에 대한 판매를 막을 권리를 갖지 않는다. 누구나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은 팔 수 있듯, 단순한 생명존엄에의 고집이 생존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인체의 일부를 파는 것의 제약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마치 자신의 선택으로 문신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귀를 뚫는 것처럼 말이다. 법의 역할은 장기를 적출당하고 이로써 협박을 당하는 등의 범죄를 제한하는 데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 실제로, 중국의 장기매매사례를 검색해보면, 음주 후 또는 유인을 통해 장기 일부가 적출된 채로 정신을 차린 수많은 일반인의 사례를 접할 수 있다. 깨어난 후 그들이 공개한 실로 봉합된 복부의 사진들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까이에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장기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는 알선부터 수술까지 10~14일에 거치는 여정을 소개하며, 중국으로 신장이식 원정을 떠나는 플랜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음지화된 장기매매는 실패확률이 높아 수술 후 합병증에 시달리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한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하고, 기다려도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만, 중국에 가면 대기할 필요도 없이 단기간에 이식이 가능하며 비용도 저렴하다. 중국은 사형수의 장기가 공공연히 적출되어 거래되며 중국정부도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견이 매우 공공연하다. 연고가 없는 노숙자들의 장기도 종종 강제 적출되어 거래되지만, 병원에서는 장기가 매매된 경로를 따지지 않고 이를 매입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중국의 장기매매의 현실을 보았을 때, 장기매매는 단순히 음지화된 일부 브로커들과 매매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가와 병원, 대기업들의 자금 또한 이러한 생명에 직결된 장기매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공연시하여, 전 세계적인,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고, 장기매매를 금지하더라도,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장기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거듭될 것이다.

결론: 장기매매의 합법화는 인간의 생명을 금전화하고 물건시여기는 풍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과, 그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턱없이 부족한 공급 앞에서 막연히 기다리라고 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또한, 현실의 장기매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더욱 크고 복잡하게 세계를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우리 셋은, 장기에 대한 금전적 대가가 지불될 수 있음에는 동의하나, 그에 대한 철저한 절차마련과, 법으로서의 보호과정이 동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020년 11월 13일

참가자대표 : 독고**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생명은 아름답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 장 소 :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독고**	학 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박**	학 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이**	학 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토의 내용</p> <p>도서 : 년 동물이야, 비스코비츠!</p> <p>목표: 각자 '년 동물이야, 비스코비츠!'를 읽고 책에 대한 느낌과 생각, 인상 깊은 부분 등을 공유합니다. 토론해볼만한 주제를 선정합니다.</p> <p>박**: 우선 우리 조의 전체적인 주제에 맞게 책을 선정했지만 제목과 달리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다르다고 느꼈다. '년 동물이야, 비스코비츠' 라는 제목에서만 느끼기에는 사회 속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제 동물에 빗대어 날카롭게 인간사를 비판하는 것임을 깨닫고 놀라웠다. 동물 취급을 당하는 소외 계급에 대한 윤리적인 고찰 등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제목에서부터 인간들을 동물이라 칭하며 맹렬히 비웃는 작가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 예상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깊다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생물학자인 작가의 전문성을 살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유한 특징들을 이용하며 이를 인간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비유하는 방식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 더 명확하게 현상을 부각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해면의 성별이 바뀌는 생태에서 착안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인간들 속 소수자들을 표현하여 이들의 상황을 설명했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아닌 동물의 상황으로 판단함으로써 인간의 잣대를 내려놓고 한층 더 중립적인 마음가짐으로 깊이 있게 현상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다.</p> <p>이**: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 등을 기대하며 이 책을 읽기는 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내용이 흥미롭고 더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면이 마음에 들었었다. 인간사 속 차별과 소외 그리고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찰도 좋지만 우리 사회 속 미묘한 계층 차이나 기회의 불균형은 다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라 판단하는 주의이다. 그렇게 때문에 인간들의 다름을 다양한 동물에 빗대어 여러 차이들을 분</p>							

명하게 드러낸 작가의 방식이 더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했다. 특히 쇠똥구리의 일화에서 이러한 면이 드러났는데, 실제로 풍덩이지만 쇠똥구리로 길러진 비스코비츠는 풍덩이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풍덩인 리우바에게 쇠똥구리의 최고의 가치인 똥으로 고백하나 당연히 풍덩이인 리우바는 더러워하며 떠난다. 자신이 애써 모은 재산이 가치관이 다른 이들에게는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풍덩이이면서 쇠똥구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의 다양한 면모를 제대로 고려해보지 않는 어리석은 방식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독고** : 맨 처음에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을 때에는 가감 없이 동물들을 이용해 인간들을 비유하는 새로운 방식에 당황했고 전체적인 책에 흐름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작가가 지나치게 인간을 동물들에게 이입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했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저 의인화된 동물들의 왕국 얘기라고 인식해버리기 쉽다고 생각했다. 작가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인간을 동물의 생태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냈지만 자칫하면 공감하기 어려운 참신함 때문에 인간과는 다른 환상속의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성형수술한 꿀벌이 가장 충격적인 일화였는데,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잘 전달되었으나 책에 대해 여러번 곱씹어보며 판단하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만 바뀌가며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의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면 매우 지루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완벽히 반대로 20여종의 전부 다른 동물과 곤충의 세계를 표현하고 이름을 통일함으로써 한 존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특성과 심리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각자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한 방식도 다르고 심오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면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과 함께 토의 시간에 더 의견을 나누어 보기로 하였다

2020 년 11 월 20 일

참가자대표 : 독고**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생명은 아름답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장 소 : 카페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독고**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style="color: blue;">* 토의 내용</p> <p>☞ 도서: 『넌 동물이야, 비스코비츠!』</p> <p>☞ 목표: 지난 활동에서 『넌 동물이야, 비스코비츠!』를 읽고 공유한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토의활동을 진행하며 각자의 의견을 보완해보고, 북클럽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p> <p>☞ 토의의 주제: ①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②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p> <p>☞ 토의내용 요약:</p> <p>(1) 이**: 보통 어떤 책을 읽기 전에는 책에 관한 서평과 제목을 참고하고 내용을 예상하는 편이어서, “백만장자가 된 돼지”, “성형수술을 시도한 꿀벌”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추천사를 보고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라져가는 존재들에 대한 윤리적 고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렇지만 점차 책을 읽게 되면서 서평에서 언급된 자본주의 속 소외되는 존재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책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20여 종류의 동물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인간 사회 속의 여러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개미와 쇠똥구리의 이야기였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하층계급에 속하던 개미 비스코비츠는 권력을 쥐기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되고, 다른 개미왕국을 몰락시키면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자신의 권력을 더욱 오래 남기고 싶었던 개미는 자신을 기념하는 동상을 만들고 동일시하지만, 그 결과로 동상의 모습에 결국 자신을 맞추게 되며 허무함을 느낀다. 한편, 쇠똥구리는 가족들이 다른 쇠똥구리에게 무참히 죽게 된 후,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따금씩 느끼더라도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 물리치고 다른 이들을 착취하며 오로지 부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랑하던 이를 잃고 나서야 자신이 사실은 쇠똥구리가 아니라 풍뎅이였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궁극적으로 타자와의 윤리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개미와 쇠똥구리 모두 자신이 꿈꾸던 바를 열심히 노력하여 성취하게 되었지만, 그 결말</p>							

은 우리 모두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며, 타자와의 의사소통 혹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에피소드는 현대 철학자 하버마스가 제시한 담론윤리학적 성격을 띠었다고 생각했다. 하버마스 이론의 핵심은 이성으로부터 비롯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나' 이외의 다른 존재를 모두 도구로 취급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관계와 더불어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자연 혹은 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 역시 존재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에피소드로, 작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자연에 대한 배려가 올바른 삶의 자세로 연결됨을 전달하고 있다고 느꼈다.

(2) 박** : 자신의 이상을 위해 자신의 주변 환경을 도구화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되는 요소이지만, 책의 저자는 인간의 내면에서 존중의 가치를 조금 더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넓은 범주의 생명윤리에는 과학기술사회학, 연구 윤리, 성차별 관련 문제들도 포함이 되는데, 책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어려움을 겪는 동물들의 에피소드들도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해면과 민달팽이의 이야기였다. 해면은 주기적으로 성별이 바뀌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편,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가지는 동물로 저자는 해면의 이야기를 제시한다. 주기적으로 성별이 바뀌는 해면의 특성을 통해 주인공 해면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며 자신이 사랑하는 리우바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괴로워한다. 한편, 자웅동체인 특성을 가지는 민달팽이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자신 스스로를 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두 동물의 이야기 모두 외적 조건에 자신을 맞추면서 절망하는 과정을 겪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자신을 더 아끼고 존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는다.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지향으로 고민하거나 방향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두 이야기 모두 결국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으로 끝맺어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아쉬움이 들었다. 책에서 두 비스코비츠는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들의 다양성을 포용해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잘 녹아들 수 있는 방향으로 끝나는 것이 존중이라는 가치의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 독고** : 처음 책을 선정했을 때, '성형수술을 한 꿀벌'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도 꿀벌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인 것 같다.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외모로 사랑받는 한 꿀벌로 인해 모든 꿀벌들은 배우자로 그를 선택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체군 내의 모든 꿀벌들은 뛰어난 외모를 가지게 된다. 그

런 상황에서 주인공 꿀벌은 자신의 인기에 부담을 느껴 자신을 오히려 추하게 만들지만 정작 자신 역시 배우자의 추한 외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다. 마침내 뛰어난 외모의 꿀벌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인공의 외모는 불품없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경멸 받았던 추한 외모가 선호의 대상으로 바뀌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피상적으로 에피소드를 바라보면, 꿀벌의 이야기는 외모지상주의 세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외모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고, 밀랍을 통해 신체를 변형시키는 과정은 신체적 조건의 우열을 가리고, 발전된 기술을 통해 이를 얼마든지 바꾸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다. 현재 유망한 기술로 조명 받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나, 줄기세포 기술들은 유전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신체적 조건이 미적 판단에 따라 가려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된다면, 꿀벌 이야기와 같이 다양성이 훼손되고 생명체의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정의하는 외적 특성을 변형시키는 데에는 그 수준에 따른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단지 개인에게 이로움이 된다는 이유로 공동체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기술의 발전에서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0년 11월 28일

참가자대표 : 독고**